

# 《郭店楚簡》의 ‘於(于)’의 용법에 대한 고찰

崔 南 圭\*

<目次>

|                    |                     |
|--------------------|---------------------|
| I. 서론              | (2) 방면              |
| II. 전치사 ‘於(于)’의 용법 | (3) 도달              |
| 1. 장소              | (4) 근거              |
| 2. 대상              | 4. ‘於’의 생략          |
| (1) 언급되는 대상        | III. ‘於(于)’자의 기타 용법 |
| (2) 행위동작을 받는 대상    | 1. 감탄사              |
| (3) 비교되는 대상        | 2. 가차자              |
| (4) 행동동작의 주체 대상    | 3. 접속사              |
| 3. 범위              | IV. 결론              |
| (1) 시기             |                     |

## I. 서론

《郭店楚簡》은 1993년 湖北省 荊門市에서 출토되어 荊門市 博物館이 정리 발표한 《郭店楚墓竹簡》(1998)을 가리킨다. 그동안 《郭店楚簡》에 대한 어법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박사논문으로는 《郭店楚簡語法研究》(2006)가 있고, 이밖에 《戰國楚簡語法研究》(2010)·《出土戰國文獻虛詞研究》(2011) 등이 있다. 이들 저서는 《郭店楚簡》의 어법현상을 중

\*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search Base Construction Fund Support Program” funded b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6.

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나, 각 용법에 대하여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戰國楚簡語法研究》나 《出土戰國文獻虛詞研究》는 《郭店楚簡》 이외의 다른 자료들과 함께 분석하고 있어 사실상 《郭店楚簡》만의 어법 분석이라고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郭店楚簡》에서 출현하고 있는 ‘於(于)’자를 모두 귀납하여 분석하고 그 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sup>1)</sup>

‘于’·‘於’자와 ‘乎’자는 음성이 서로 통하고 같은 용법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동원자에 해당된다.<sup>2)</sup> ‘乎’자는 의문이나 감탄을 표시하는 어조사로 쓰이는 경우 이외에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는 ‘於(于)’와 같은 용법으로 쓰인다. 하지만 《郭店楚簡》에서 ‘乎’자는 비교를 표시하는 전치사 용법 이외에 조사의 용법으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sup>3)</sup> 본 논문에서는 《郭店楚簡》중 ‘於(于)’자의 용법을 분석하고 그 통계를 제시하기로 하고, ‘乎’자의 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한다.<sup>4)</sup>

《郭店楚簡》에서 6차례만이 ‘于’자로 쓰고, 나머지 160여 차례는 모두

- 1) ‘于’자와 ‘於’자 중 갑골문이나 周代 金文, 《書經》·《詩經》·《春秋》 등에서 일반적으로 ‘于’자로 쓰고, 《論語》·《墨子》·《孟子》·《莊子》·《荀子》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於’자를 쓴다. 하지만 《左傳》과 《國語》 등에서는 ‘于’와 ‘於’자를 동시에 사용한다. 《論語》와 《孟子》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於’자를 쓰나 《詩經》이나 《書經》을 인용하는 곳에서는 ‘于’자를 쓴다. ‘于’자와 ‘於’자의 사용은 周法高, <上古語法札記>, 《中國言語學論文集》, 1975, 302쪽을 참고.
- 2) ‘同源字’의 조건은 語音과 語義가 같거나 비슷하다. 周法高의 上古音 중 ‘于’는 ‘ɣjwaɣ(魚)’이고, ‘於’는 ‘ʔaɣ(魚)’이고, ‘乎’자는 ‘gaɣ(魚)’이다. 上古韻部가 모두 ‘魚’에 속한다. 사이트 ‘小學堂’, <http://xiaoxue.iis.sinica.edu.tw/> 참고.
- 3) 《郭店楚簡》에서 ‘乎’자는 일반적으로 ‘禱’이나 ‘庠’로 쓰며, 문중(文中)이나 문말(文末)語氣助詞로 주로 쓰인다.
- 4) 《郭店楚墓竹簡》의 문자에 대한 고증과 주석, 우리말 해석은 崔南圭 譯註 《郭店楚墓竹簡》(2016)을 참고하기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보충 설명하기로 한다. 우리말 해석은 《郭店楚墓竹簡》(2016)이 주로 의의적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법적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하기로 한다. 《郭店楚簡》인용문 중 부호 ‘【】’은 죽간의 순서 번호를 표시한다.

‘於’자로 쓴다. ‘于’자는 《郭店楚簡》·《緇衣》에서 《尚書》를 인용하고 있는 두 곳과 《性自命出》에서는 한 곳, 《五行》에서는 두 곳, 《語叢三》에서 한 곳에서 쓰인다. 《性自命出》에서는 ‘於’자가 11차례 쓰이나 한 차례만 ‘于’자를 쓰고, 《五行》에서는 16차례를 ‘於’자로 쓰고 두 차례만 ‘于’자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통적인 용법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sup>5)</sup> 갑골문에서 ‘于’자는 ‘𠄎’·‘𠄏’로 쓰고 금문에서는 ‘𠄎’·‘𠄏’·‘于’로 쓰고, 《郭店楚簡》은 ‘𠄎’·‘𠄏’로 쓴다. ‘於’자는 초간에서 일반적으로 네 가지 형태로 쓴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𠄎’·‘𠄏’로 쓰고, 두 번째는 ‘𠄎’·‘𠄏’로 쓰고, 세 번째는 ‘𠄎’·‘𠄏’로, 네 번째는 ‘𠄎’·‘𠄏’로 쓴다.<sup>6)</sup> 《郭店楚簡》 중 《語叢》은 주로 첫 번째 형태로 쓰고, 《唐虞之道》는 주로 세 번째 형태로 쓰며, 나머지는 주로 네 번째 형태로 쓴다.

## II. 전치사 ‘於(于)’의 용법

《郭店楚簡》 중 ‘於(于)’자가 전치사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는 의미적으로 크게 ‘장소’·‘대상’과 ‘범위’를 나타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5) 古典籍에서 ‘於’와 ‘于’자의 출현 현황은 주 ‘2’ 참고. 秦나라 출토 문헌에 해당되는 《睡虎地秦簡》에서 ‘於’자는 47차례 보이는데, 그중 《日書》에서 34차례가 보인다. ‘于’자는 모두 15차례 보이는데, 그 중 《日書》에서 4차례 보인다. 또한 ‘于’자는 《編年記》·《語書》와 《爲吏之道》에서는 쓰지 않고, 《秦律十八種》에서만 모두 보인다. 《睡虎地秦簡》에서는 ‘於’자와 ‘于’자가 동시에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於’자는 《日書》에 많이 쓰이고 있다. 이는 《日書》가 법률문서가 아닌 민간 신앙과 관련된 일반 문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滕壬生, 《楚系簡帛文字編(增訂本)》(2008), 377쪽.

## 1. 장소

‘於’字句가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동작이나 시간이 발생하고 진행되는 구체적인 장소를 표시한다. 이러한 용법은 《郭店楚簡》에서 20차례 보인다.

아래의 예문은 《郭店楚簡》 중의 장소를 표시하는 ‘於’字句의 예문이다. ‘……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러한 예문은 《窮達以時》와 《五行》에 주로 보인다.<sup>7)</sup>

① 舜(耕)於(歷)山,<sup>8)</sup> 陶(陶)管(拍) 【2】 於(河)厓(湖),<sup>9)</sup> 立而爲天子, 堯(遇)先(堯)也.(《窮達以時》)

虞舜이 역산에서 밭을 갈고 황하 주변에서 도기를 만들다가 천자가 된 것은 우연히 요임금을 만났기 때문이다.

② “文 【29】 田畝田, 於昭于而<天>”, 此之胃(謂)也.(《五行》)<sup>10)</sup>

- 7) 《窮達以時》 중 ‘於’字句가 ‘장소’를 표시하는 경우는 【2】 이외에도 【5】 와 【10】 에도 보인다. 논문 편목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 8) ‘舜’자에 대하여 裘錫圭 案語는 ‘耕’자의 이체자가 아닌가 하였다.(《郭店楚墓竹簡》, 146쪽, 注3.) 劉釗《郭店楚簡校釋》은 ‘𠂔’로 예정하고 ‘耕’자의 고문이라 하였다.(劉釗, 《郭店楚簡校釋》, 170쪽) 《郭店楚簡·成之間之》제13간의 ‘𠂔’자와 형태가 비슷하다.(李零, 《郭店楚簡校讀記》, 86쪽. 《楚系簡帛文字編(增訂本)》, 432쪽) ‘𠂔’ 중 ‘力’은 ‘耒(쟁기)’의 모양을 형상한 것이고, ‘又’는 손으로 ‘耒(쟁기)’를 잡고 있음을 뜻한다.
- 9) ‘陶(陶)’자는 ‘缶’와 소리부 ‘匚’로 이루어진 형성자로 ‘陶’와 같은 자이다. ‘管(管)’자는 ‘竹’과 소리부 ‘白’으로 이루어진 형성자로 ‘拍’으로 읽는다. ‘拍’자는 ‘搏’과 같은 자이다. ‘陶拍’은 곧 ‘搏陶’로 동사와 목적어 어순이 바뀐 것이다. ‘厓(厓)’자는 ‘匚’과 소리부 ‘古’로 이루어진 자로 형성자이다. 劉釗 《郭店楚簡校釋》에서는 이 자를 ‘浦’로 읽고, 李零 《郭店楚簡校讀記》는 ‘滯’자로 읽었다. 음성상 ‘滯(물가 호, hù)’자의 음이 ‘古’음에 더 가깝다.(劉釗, 《郭店楚簡校釋》, 170. 李零, 《郭店楚簡校讀記》, 87쪽)
- 10) 본 구절에서 인용하는 있는 《詩經》은 《大雅·文王》이다. 《詩經》의 내용을 참고하여 “文王在上, 於昭于天”을 보충할 수 있다. 《詩經》은 孔穎達 《毛詩正義》를 참고하기로 한다.(956쪽)

《詩經·大雅·文王》에서 “하늘에 계신 문왕, 아아! 하늘에서 빛나도다.”  
라고 한 말이 이를 가리킨다.

예문 ② 중 ‘于’자는 《詩經》의 옛 구절을 인용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於’자 대신 ‘于’자를 쓴다. 현행본 《詩經》은 ‘天’으로 쓰는데, 《郭店楚  
簡》은 ‘天(而)’자로 쓴다. 자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sup>11)</sup>

방위사와 함께 쓰여 장소를 나타내는 예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③ 夫古者 【15】 舜伇(居)於艸(草)茅之中而不慕(憂), 身爲天子而不喬  
(驕).(《唐虞之道》)

옛 舜 임금의 신분이 비천하여 초가집에서 살았지만 근심이 없었고, 천  
자가 되어서는 교만하지 않았다.

④ 天隍(地)名志(字)並立, 古(故)愆(過)其方, 不思相□□□□ 【12】 於  
西北,<sup>12)</sup> 其下高以弼(強). 隍(地)不足於東南, 其上□□□□□□ 【13】  
者,<sup>13)</sup> 又(有)余(餘)於下. 不足於下者, 又(有)余(餘)於上. 【14】 (《太一  
生水》)

天地는 그 名分과 문자가 각각 존재하지만, 단지 이름을 가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니, 이를 天과 地와 완전히 같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하늘(天)은 西北 지역에서 낮고 부족하기 때문에 동남 지역  
이 높고 강하며, 땅은 東南 지역에서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북 지역이  
높고 강하다. 이는 곧 위 지역에서 부족하면 아래지역이 여유가 있고, 아래  
지역에서 부족하면, 위 지역이 여유가 있는 것과 같다.

예문 ③ 《唐虞之道》는 ‘於’字句 중심어에 ‘中’자를 쓰고, 예문 ④ 《太  
一生水》의 ‘【12】 ~ 【14】’의 구절은 동서남북의 지역의 균형이라는 개념으

11) 《唐虞之道》 제 25간에서도 ‘天’자를 ‘而’자로 쓴다.  
12) 李零 《郭店楚簡校讀記》는 ‘當, 天不足’ 세 자가 잔실되었다고 하였다. 32쪽  
참고.  
13) 李零 《郭店楚簡校讀記》는 “□以□. 不足於上”을 보충하였다. 33쪽 참고.

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로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마음속에서’라는 장소를 표시하는 경우로 쓰인다.

⑤ 上士昏(聞)道, 堇(勤)能行於其中. 【乙 9】(《老子乙》)

上士는 도를 들으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행하려하는데 만 힘쓴다.

아래 문장은 모두 장소를 표시하는 ‘內’자를 사용하여 ‘주어+동사+於內+謂之’의 형식으로 쓴다.

⑥ 五行: 惠(仁)型(形)於內胃(謂)之惠(德)之行, 不型(形)於內胃(謂)之行. 義型(形)於內胃(謂)之惠(德)之【1】行, 不型(形)於內胃(謂)之行. 豐(禮)型(形)於內胃(謂)之惠(德)之行, 不型(形)於內胃(謂)之【2】行, 匱(禮)於內胃(謂)之惠(德)之行, 不型(形)於內胃(謂)之行. 聖型(形)於內胃(謂)之惠(德)【3】之行, 不型(形)於內胃(謂)之惠(德)之行. (《五行》)

五行皆型(形)于內而時行【6】之, 胃(謂)之君臣. (《五行》)<sup>14)</sup>

오행은 다음과 같다. ‘仁’이 내심에서 형성된 것을 ‘德之行’이라 하고 내심에서 형성되지 않은 것을 ‘行’이라 한다. ‘義’가 내심에서 형성된 것을 ‘德之行’이라하고, 내심에서 형성되지 않은 것을 ‘行’이라 한다. ‘禮’가 내심에서 형성된 것을 ‘德之行’이라하고, 내심에서 형성되지 않은 것을 ‘行’이라 한다. ‘智’가 내심에서 형성된 것을 ‘德之行’이라하고, 내심에서 형성되지 않은 것을 ‘行’이라 한다. ‘聖’이 내심에서 형성된 것을 ‘德之行’이라하고, 내심에서 형성되지 않은 것을 ‘行’이라 한다. 마음에서 五行(仁義禮智聖)이 형성하고 이를 항상 실천하고자 하는 자를 君子라 한다.

예문 ⑥ 《五行》의 【6】 간은 ‘於’자 대신 ‘于’자로 쓰고 ‘內’자는 ‘마음’이라는 곳에서 형성됨을 말한다.

《郭店楚簡》 중 ‘於(于)’자가 전치사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는 모두 20차례 보인다. 전체 166개의 ‘於(于)’ 중 약 12

14) ‘□’ 안의 문자는 《郭店楚墓竹簡》(1998)의 151쪽 ‘注 1-6’을 참고하여 추가하기로 한다.

%를 차지한다.

## 2. 대상

‘대상’이란 ‘於(于)’字句가 동사의 행위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로, ‘언급되는 대상’·‘행위동작을 받는 대상’·‘비교되는 대상’이나 ‘행위동작의 주체 대상’ 등을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郭店楚簡》중 ‘於(于)’가 대상을 표시하는 전치사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는 모두 20차례 보인다. 전체 166개 ‘於(于)’자의 용법 중 약 12%를 차지한다.

### (1) 언급되는 대상

‘언급되는 대상’이란 ‘於’字句가 동작을 행하는 대상으로 현대 중국어로 ‘向’이나 ‘對’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우리말은 ‘.....에게’나 ‘.....대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郭店楚簡》의 예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⑦ 以(行)道差(佐)人(主)者, 不(谷)欲(以)兵强 [6] 於天下.(《老子甲》)

도로써 임금을 보좌하는 사람은 군대로써 천하 사람에게 강함을 드러내 고자 하지 않는다.

⑧ 唯(雖)敵(勇)力(聞)於邦, 不(女)如(如)材. [24] (《語叢四》)

용맹이 온 나라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보다 재주를 갖추는 것이 낫다.

⑨ 《君奭》 [36] 員(云): “昔(才)在(在)上帝, 戡(割)紳(觀)文(王)惠(德), 其集(大)命(于)乎(厥)身.” [37] (《緇衣》)

《君奭》은 ‘옛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문왕의 덕행을 신중하게 관찰하시어 천명을 그대에게 내리셨네.’라고 했다.

예문 ⑦ 《老子甲》의 ‘不(谷)欲(以)兵强於天下’ 구절은 앞 주체어 대한 술어이다. 이 술어는 다시 ‘부정부사 + 중심술어+전치사, 목적어(以兵)+술어+전치사, 목적어(於天下)’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以兵强於天下’는 본 구절의 전체 술어 ‘不欲’의 목적어이고, 이 목적어 중 ‘전치사+목적어(以

兵)’는 다음 동사 ‘強’을 수식하는 부사어이고 ‘於天下’는 ‘強’자의 보어이다. 의미상으로 ‘天下’는 천하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문 ⑨ 《緇衣》 【37】은 《尙書》를 인용한 구절로 ‘于’자로 쓴다. ‘그 사람에게 큰 명령을 집중시키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언급되는 대상이 이중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다.

⑩ 魯穆公昏(問)於子思曰: “可(何)女(如)而可胃(謂)忠臣.” 【1】(《魯穆公問子思》)

노목공이 자사에게 “어떠한 사람을 충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⑪ 公曰: 向(嚮)者虛(吾)昏(問)忠臣於子思. 【3】(《魯穆公問子思》)

노목공이 물었다. “내가 조금 전에 자사에게 어떠한 사람을 충신이라 할 수 있는가?”고 물었다.”

⑫ 申(中)心兌(悅)糞(播), 甞(遷) 【32】於兄弟, 裒(戚)也. (《五行》)15)

衷心의 기쁜 마음을 전파하고, 형제에게衷心의 기쁜 마음을 전해주면 가깝게 된다.

예문 ⑫의 ‘昏(問)’과 ‘甞(遷)’자는 이중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이다. ‘昏(問)忠臣於子思’는 ‘충신에 대하여 자사에게 묻는 것’이고, ‘甞(遷)於兄弟’ 구절은 ‘於’자 앞 이미 출현한 ‘中(衷)心悅’이 생략되었다.

‘대상’을 표시하는 용법 20차례 중 ‘언급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6차례로 약 30%에 해당된다. 전체 166개 ‘於(于)’자에 대해서는 3.61%에 해당된다.

15) ‘甞(甞)’자는 ‘甞’이나 ‘甞’자로 쓰기도 한다. ‘遷’자의 이체자이다. ‘裒(裒)’자는 ‘就’로 읽을 수 있고, ‘就’의 음성은 ‘戚’과 서로 통한다. 《六德》 제48간의 ‘甞’자는 ‘走’과 ‘裒’聲인 형성자로 역시 ‘戚’으로 읽는다. 劉釗 《郭店楚簡校釋》은 “戚, 卽親戚的戚, 《小爾雅》: ‘戚, 近也.’ 字又作‘戚’.”라 하였다(76쪽 참고).

(2) 행위 동작을 받는 대상

‘행위 동작을 받는 대상’이란 ‘於’字句가 동사의 행위 동작의 지배를 받아 처리되어지는 대상으로 ‘……을(를), ……대해서(어떻게 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郭店楚簡》의 예문은 아래와 같다.

⑬ 天道貴溲(弱)雀(削)成者以益生者, 伐於(弼)強, 責於…… 【9】 (《太一生水》)

하늘의 도는 약함을 귀하게 여기고 이룬 것을 쇠약하게 하여 새로이 탄생하는 사물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그래서 道는 강한 것을 타박하고 …… 질책하여……<sup>16)</sup>

⑭ 爲下 【3】 可禎(述)而箚(志)也, 則君不悞(疑)其臣, 臣不惑於君.(《緇衣》)

신하(하급자)는 각자의 등급에 따라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하여 바로 알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래야 만이 군주는 신하를 의심하지 않고, 신하는 군주를 의혹하지 않게 된다.

⑮ 《寺(詩)》員(云): “吾(淑)誓(慎)尙止, 不侃(讐)于義(儀).” 【32】 (《緇衣》)

《詩經·大雅·抑》에 말하기를 ‘그대의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서 그 위엄을 욕되지 않게 하라’고 했다.

예문 ⑮ 《緇衣》의 【32】 간은 《詩經》을 인용한 구절이고 ‘于’자로 쓴다. ‘侃’자는 ‘讐’과 통하여 ‘허물이 되다’라는 뜻이다. 아래 문장은 ‘구조조사’ ‘之’와 함께 쓰이는 예문이다.

⑯ 今之弋(式)於直(德)者, 未 【17】 年不弋(弋), 君民而不喬(驕). (《唐虞之道》)

현재 德을 근본 원칙으로 삼는 자가 항상 덕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를

16) 裘錫圭는 ‘雀(雀)’자를 ‘削’(“疑‘雀’可讀爲‘削.’”)으로 해석하였다.(《郭店楚墓竹簡》, 126쪽) ‘雀’자와 ‘削’자는 모두 ‘小’가 소리부분이다. 《說文解字》는 ‘雀(雀)’자에 대하여, “依人小鳥也. 從小佳, 讀與爵同.(‘사람 가까이 사는 작은 새’. ‘小’와 ‘佳’로 이루어진 자로 ‘爵’과 음이 같다.)”라 하였다.

한다면 군주와 백성은 교만하지 않게 된다.

예문 ⑮ 《唐虞之道》의 ‘弋’자는 원래 ‘戈(戈)’자로 쓰는데, 이는 ‘弋’자를 잘못 쓴 것이다. 본 구절에서는 ‘式’이나 혹은 ‘忒’의 의미로 쓰인다.<sup>17)</sup> ‘今之弋(式)於直(德)者’는 시간을 표시하는 ‘今’자와 ‘동사+德+조사’ 구조가 구조조사 ‘之’로 연결되어 하나의 명사구를 형성하고 전체 주제어의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언급하는 대상’과 ‘행위동작을 받는 대상’의 차이점은 ‘행위동작을 받는 대상’은 동사의 인식되어지는 대상이나 처리되어지는 수사(受事)대상이고, ‘언급대상’은 동작과 행위를 함께 하는 동반대상이다.

‘대상’을 표시하는 용법 20차례 중 ‘행위동작을 받는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5차례로 약 25%에 해당된다. 전체 166개 ‘於(于)’자에 대해서는 3.01%에 해당된다.

### (3) 비교하는 대상

‘비교하는 대상’은 ‘於’字句가 비교나 혹은 비유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郭店楚簡》의 예문은 아래와 같다.

⑰ 龠(含)惠(德)之厚者, 比於赤子. 【33】 (《老子甲》)

덕이 중후한 자는 어린아이에 비유할 수 있다.

⑱ 所以異於父, 君臣不相才(在)也. 【3】 (《語叢三》)

그래서 부자관계와 다르게 군신관계는 부자관계처럼 서로 의존하지 않는다.

‘乎’자는 《郭店楚簡》에서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老子》에서는 비교를 나타내는 전치사 ‘於’자와 같은 용법으로 쓰이기도 한

17) 李零 《郭店楚簡校讀記》는 앞 ‘弋’자를 ‘載’로 읽고(96-98쪽), 劉釗 《郭店楚簡校釋》은 첫 번째 자는 ‘式’으로 읽고 두 번째 자는 ‘忒’자로 읽었다.(149쪽 참고)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劉釗의 주장에 따라 해석하기로 한다.

다.

①⑨ 辜(罪)莫厚虐(乎)甚欲, 咎莫僉(僉)虐(乎)谷(欲)得, 【5】 化(禍)莫大虐(乎)不智(知)足. 智(知)足之爲足, 此互(恒)足矣. 化(禍)莫大虐(乎)不智(知)足. (《老子甲》)

죄는 심한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고, 재앙은 분수에 넘치게 얻으려는 것보다 심한 것이 없고, 화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런 까닭에 만족할 줄 앎으로서 만족을 하면 항상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다. 화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대상’을 표시하는 용법 17차례 중 ‘비교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2차례로 약 16 %에 해당된다. 전체 166개 ‘於(于)’자에 대해서는 1.12%에 해당된다.

(4) 행위 동작의 주체 대상

‘행위동작의 주체 대상’은 ‘於’字句가 행동이나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郭店楚簡》의 예문은 아래와 같다.

②⑩ 古之甬(用)民者, 求之於(己)爲(恒). 【1】 (《成之聞之》)

고대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는 것을 변함없이 하였다.

②⑪ 言(慎)求之於(己), 而可以至川(順)天(常)僉(矣). 【38】 (《成之聞之》)

언행은 조심해서 자기가 자신에게서 성찰하여야만 하늘의 常道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sup>18)</sup>

예문 ②⑩ ‘求之於(己)’는 ‘동사(求)+대사(之)+於자구’ 구조로 ‘爲恒’

18) ‘言(慎)求之於(己)’의 구절을 《窮達以時》【15】에서는 “古(故)君子惇於(反)反(己).”(항상 자기 자신에서 구하는 것을 돈독히 해야 한다.)로 쓴다.

의 주체어 용법으로 쓰인다. ‘求之’는 결국 자기 자신이 구하는 것이며 주관자가 자신이기 때문에 ‘행위 동작의 주체 대상’ 즉 ‘시사(施事)’의 의미를 나타낸다.

㉔ 型(形)於中, 雙(發)於色, 其蕩(蕩)也固悞(矣), 民管(孰)弗信? 【24】 (《成之聞之》)<sup>19)</sup>

마음으로 행하고 즐거운 안색을 나타내며, 감동시키고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백성이 어찌 믿지 않겠는가?

예문 ㉔ ‘型(形)於中, 雙(發)於色’ 구절은 ‘마음이 형성되어지고, 안색이 나타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안색’을 주체자로 이해할 수 있다.

㉕ 莛(刑)不隸於君子, 豐(禮)不 【31】 隸於小人.(《尊德義》)

형벌은 군자가 가까이 하지 않으며, 禮儀는 소인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隸’자는 ‘따르다’·‘이르다’라는 ‘逮’의 의미로 쓰인다. ‘형벌’을 군자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예의’는 소인이 추구하는 바가 아니더라는 뜻이다.

‘대상’을 표시하는 용법 20차례 중 ‘행동 동작의 주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7차례로 약 35%에 해당된다. 전체 166개 ‘於(于)’자에 대해서는 .21%에 해당된다.

### 3. 범위

‘범위’는 ‘於’字句가 동작 행위가 발생하는 ‘시기’·‘방면’·‘도달’·‘근원’ 등을 나타낸다.<sup>20)</sup> 《郭店楚簡》 ‘於(于)’자 전체 166개 중 범위를 표시하는

19) ‘蕩(蕩)’자에 대하여 李零 《郭店楚簡校讀記》는 ‘誠’자와 음이 비슷하다하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124쪽 참고) 劉釗 《郭店楚簡校釋》은 소리부가 ‘易’으로 ‘蕩’으로 읽는다 하였다.(145쪽 참고) ‘心蕩’의 ‘마음이 감동되어 움직인다’는 뜻이다.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123차례로 가장 많다. 약 74.6%에 해당된다. 이 중 ‘근거’를 표시하는 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모두 100차례로 약 80%에 해당된다. ‘범위’를 나타내는 용법 124차례 중 ‘시기’가 5차례, 방면이 12차례, ‘도달’이 7차례, 근거가 99차례로 각각 4.06%, 9.75%, 5.69%, 80.4%에 해당된다.

(1) 시기

‘於’字句가 시기를 나타내는 경우는 시기가 구체적인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나 시기적 특징을 표시하는 ‘범위’를 나타낸다. 우리말은 ‘……때에는’라고 번역할 수 있다.

㉔ 爲之於其 【25】 亡又(有)也. 紂(治)之於其未亂. (《老子甲》)

그것을 해야 할 때는 아직 있지 않았을 때 하며, 다스리는 것은 아직 혼란이 생기기 전이어야 한다.

㉕ 人之敗也, 亘(恒)於其敵(且)成也敗之. 【15】 (《老子丙》)

일반 백성들의 실패는 항상 거의 성공할 단계에 실패하고 만다.

㉖ 六帝興於古, 虞(咸)采(由)此也. 【8】 (《唐虞之道》)

六帝가 고대에 일어나게 된 것은 모두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㉗ 凡於途(路)毋懼(畏), 毋蜀(獨)言. 【60】 (《性自命出》)<sup>21)</sup>

길을 나서야 되는 경우에는 두려워 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다고 독단적

20) “於(于)引進動作發生·情況出現的範圍, 助成的介詞結構用在動詞後邊·前邊或句子主語前邊, 可譯爲‘在……方面’·‘在……中’·‘在……上’, 這是有個‘所在’的處所義引伸來的.” 段德森, 《實用古漢語虛詞》(1999), 60쪽.

21) 《性自命出》의 ‘途(途)’자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李零 《郭店楚簡校讀記》는 ‘路’자를 잘못 쓴 것이라 하였다.(111쪽 참고) 이 자의 왼쪽 부분과 관련이 있는 자로는, ‘途’(《成之聞之》 제31간)자가 있는데, 이 자는 일반적으로 ‘登’이나 ‘降’의 의미로 쓰인다. 《郭店楚簡·緇衣》에 ‘途’(제38간)·‘途’(제39간)자가 있는데 ‘格’이나 ‘略’으로 읽는다. ‘格’·‘略’자나 ‘路’자는 모두 소리부가 ‘各’이다. 《上博楚簡·性情論》이 본 구절을 “凡於道途(路)毋懼(畏), 毋蜀(獨)言”으로 쓰는 것으로 보아 ‘路’자의 의미로 쓰인다.

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예문 ㉗ 중 ‘迨’자는 ‘路’의 이체자이다. ‘於路’의 뜻은 ‘길에 있게 되는 경우’는 즉 ‘길을 나서야 하는 경우로, 부름을 받고 外事에 관여하는 일이 있게 되는 때’에는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전체 166개의 ‘於(于)’ 중 ‘시기’를 의미하는 전치사는 모두 5차례 출현하여 약 3.10%을 차지한다.

## (2) 방면

‘방면’이란 ‘於’字句가 행위동작이 발생하게 되는 근원지를 나타내는 경우로, ‘어떤 방면(경우)에 있어’로 해석할 수 있다. 《郭店楚簡》의 예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아래는 군자의 덕행 ‘방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㉘ 則民誓(慎)於言而懂(謹)於行. 【33】 (《緇衣》)

그러면 백성은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삼갈 것이다.

㉙ 士又(有)志於君子道, 胃(謂)之時(志)士. 【7】 (《五行》)

선비(士)가 군자의 天道에 뜻을 두고 있는 자를 志士라 한다.

㉚ 不行. 不匿, 不覈(察) 【37】 於道. ……弗亦(赦)也, 不覈(察)於道也.

【39】 (《五行》)

剛簡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다. 친근함을 隱匿하지 않으면 道의 경우를 明察할 수 없다. 소죄가 있으나 용서해 주지 않으면 道의 경우를 明察할 수 없다.

㉛ 是君子之於言也, 非從末流者之貴, 窮(窮)源(源)反本(本)者之貴.

【11】 (《成之聞之》)

그러므로 군자는 언론에 대해서는 말류의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근원을 찾아 캐묻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㉜ 君子之於教(教)也, 其道民也不憲, 則其濼也弗深揆(矣). 【4】 (《成之聞之》) 22)

군자가 교화에 있어서는 만일 민중을 은연중에 감화시킬 수 없다면, 민

중에 대한 교화는 깊지 않을 것이다.

예문 ㉓의 《成之聞之》의 내용은 제 13간에도 보인다. ‘是’자를 제 13간에서는 ‘是故’로 쓴다. ‘君子之於言’은 ‘군자가 말을 하는데 있어서는’라는 뜻이다. ‘명사+구조조사(之)+於자구’의 형식으로 주제어이다. ‘於教’는 ‘교육을 시키는데 방면에서는’라는 뜻이기 때문에 ‘방면’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君子之於教(教)也’ 구절은 전체적으로 주제어의 용법으로 쓰인다.


㉓ 節於而也,<sup>23)</sup> 【26】 則猷(猶)是也. 唯(雖)其於善道也, 亦非又(有)譯婁(數)以多也, 及其專長而秣(厚) 【27】 大也, 則聖人不可由與墜之.(《成之聞之》)

그것을 조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한 이와 같다. 비록 그 善道에 관해서는 그 또한 선택할 기회는 많지 않지만, 善道를 선택할 기회가 많게 되는 경우에는 성인은 망설이거나 의심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예문 ㉔ ‘節於而也’와 ‘唯(雖)其於善道也’ 구절 역시 모두 판단문 구절 중 주제어 역할을 한다.

㉔ 並(傍)於大昔(時), 神明均從, 天陰(地)右(佑)之. 【15】 (《唐虞之道》)<sup>24)</sup>

(인과 사랑이)적절하게 때에 맞고 방해를 받지 않아 천지신명의 뜻을 따르게 되면 천지가 保佑하게 된다.

22) ‘ (憲)’자를 裘錫圭 案語는 ‘浸’의 의미로 쓰인다 하였다. 《郭店楚墓竹簡》, 168쪽, 注2 참고. “점점 물에 젖어 들듯이 교화하다”의 뜻이다.

23) ‘節於而也’ 중 ‘節’은 ‘절제하다’는 의미로, ‘而’는 ‘此’의 의미로 쓰인다. 崔南圭 譯註 《郭店楚墓竹簡》(2016), 405쪽 참고.

24) ‘ (並)’자는 ‘傍’으로 읽고 ‘依’의 의미로 쓰인다.

예문 ㉔ ‘並(傍)於大昔(時)’는 ‘큰 시기에 알맞게 실행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방면’을 표시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㉕ 少(小)人 【34】 不經人於刃, 君子不經人於豐(禮). (《成之聞之》)

소인은 仁義에 있어 다른 사람을 넘어서기를 바라지 않고, 군자는 예절에 있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sup>25)</sup>

예문 ㉕ ‘不經人於刃’과 ‘不經人於豐(禮)’ 구절은 ‘부사어 + 동사 + 명사 + 於 + 명사’의 구조이다. 經(經)‘자는 ‘糸’와 소리부 ‘冫’으로 이루어진 자로 ‘逞’으로 읽으며, ‘드러나다’의 뜻이다. 裘錫圭는 ‘刃(刃)’자를 ‘仁’으로 읽고, “소인은 仁義 실행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를 바라지 않고, 군자는 禮義 실행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 해석하였다.<sup>26)</sup> 즉 ‘인의’와 ‘예의’ 방면에 관한 언급이다.

전체 166개의 ‘於(于)’ 중 ‘방면’을 의미하는 전치사는 모두 12차례 출현하여 약 7.22%를 차지한다.

### (3) 도달

‘도달’이란 의미적으로 동작이나 행위가 ‘於’字句에 미침을 말한다. 우리 말로 ‘.....에 이르다(미치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郭店楚簡》의 예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㉖ 能進之爲君子, 弗能進也, 各止於其里. 【42】 (《五行》)

능히 전진하여 군자가 될 수도 있으며, 만약에 군자가 될 수 없으면 각 각이 도달한 곳에 머물게 된다.

㉗ 勿(物)各止於其所我行. 【105】 (《語叢一》)

만물은 각자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얻게 된다.

25) 《成之聞之》의 【34-35】의 문장의 해석과 고증은 崔南圭 譯註 《郭店楚墓竹簡》(2016), 409-410쪽 참고.

26) 《郭店楚墓竹簡》, 170쪽, 注30. “謂小人不求在仁義方面而勝過人, 君子不求在禮義方面勝過人.”

예문 ③⑥의 ‘止’자가 ‘그곳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곳에 이르러 머물러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도달’로 이해할 수 있다.

③⑧ 及其見於外, 則勿(物)取之也. 【2】 (《性自命出》)

이 ‘性’은 외부에 발현되어지는 것은 물질이 그것을 취한 것이다.

③⑨ 亞(惡)之而不可非者, 達於義者也. 非之【54】而不可亞(惡)者, 篤(篤)於身(仁)者也. 【55】 (《性自命出》)

그를 비록 미워하나 그를 비평할 수 없음은 그가 義理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를 비평한다해도 그를 미워할 수 없음은 그가 仁義에 돈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문 ③⑧ ‘及其見於外’는 판단구 중의 주제어에 속한다. ‘及’은 동사이고 ‘其見於外’는 목적어이다. 예문 ③⑨ 《性自命出》의 【54】 【55】 역시 판단문에 속한다. ‘見於外’는 외부에 발현되어지는 것이고, ‘達’과 ‘篤’은 그 수준에 이르렀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도달’의 의미로 볼 수 있다.

④⑩ 《大禹(禹)》曰: “余才(宅)天心”, 害(曷)? 此言也, 言余之此而(宅)於天心也. 【33】 (《成之聞之》)<sup>27)</sup>

《大禹》에서는 “이 일을 처리할 때 천심에 따라 한 것이다”라 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의 뜻은 이 일을 처리할 때 하늘에 뜻을 두고 헤아려 따른다는 뜻이다.

예문 ④⑩ “余才(宅)天心” 구절은 “舍此度天心”으로 읽을 수 있다. ‘일을 처리할 때 天心에 마음을 두는 것이다’라는 뜻이다. 천심에 무엇인가를 헤아

27) “余才(宅)天心”에 대하여 李學勤은 “余此而宅天心”으로 이해하고 ‘余’자는 ‘안배하다’는 ‘舍’자의 가차자라 하였다.(丁原植, 《郭店楚簡儒家佚籍四種釋析》, 2000, 183쪽 재참고.) 劉劭는 ‘余’자는 ‘舍’로 읽고, ‘宅’자를 ‘度’자로 읽었다.(《郭店楚簡校釋》, 143 쪽.)

려 이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도달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동사+於+명사목적어’의 형식으로 ‘위치’나 ‘지위’에 있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직위에 이르렀기 때문에 ‘도달’로 볼 수 있다.

㉑ 君均冕(冕)而立於復(祚), 一宮之人不剩(勝) 【7】 其敬. (《成之聞之》)<sup>28)</sup>

군주가 아랫사람과 똑같은 祭服을 입고 왕의 자리에 서 있으면 궁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각별히 공손하고 존경할 것이다.

㉒ 古者堯生於天子而又(有)天下, 聖以堯命. 【14】 (《唐虞之道》)<sup>29)</sup>

옛날 堯는 천자의 위치로 태어나 天下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聖明을 천명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예문 ㉑ ‘立於復(祚)’는 ‘천자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의미는 ‘천자가 되었다’라는 뜻이다.

전체 166개의 ‘於(于)’ 중 ‘시기’를 의미하는 전치사는 모두 7차례 출현하여 약 4.21%을 차지한다.

#### (4) 근거

‘근거’란 ‘於’字句가 행위동작의 근원이나 원인 혹은 공구 등을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말은 ‘……로부터’나 ‘……에서’로 해석될 수 있다. 《郭店楚簡》에서는 ‘於’字句가 근거를 표시하는 예문이 상당히 많다. 모두 100차례가 ‘근거’를 표시하는 전치사 용법으로 쓰인다.

28) 均(均)자를 裘錫圭 案語는 ‘衿’으로 읽는다 하였다. ‘衿’은 ‘純服’으로 신분에 상관없이 있는 평상복을 말한다. 冕(冕)자를 裘錫圭 案語는 ‘示’와 소리부 ‘曼’으로 이루어진 형성자 ‘縵’자로 예정하고 ‘冕’으로 읽었다. ‘冕’은 冠이고 ‘衿冕’은 제사 때 입는 복식이다. 《郭店楚墓竹簡》(1998), 169쪽, 注 7.

29) 李零 《郭店楚簡校讀記》는 ‘堯生於天子’ 중의 ‘於’자는 ‘爲’자의 誤字가 아닌 가하고 있으나(98쪽), 전후 문맥상 ‘어’字句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어 굳이 ‘爲’자로 해석하지 않기로 한다.

㉓ 天下之勿(物)生於又(有), 生於亡. 【37】 (《老子甲》)

천하의 만물은 有에서 생겨났지만, 그 有는 無에서 생겨난 것이다.

㉔ 夫樂□□□ 【7】 以得志於天下. (《老子丙》)<sup>30)</sup>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는 자는 천하로부터 민심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예문 ㉓ 《老子丙》 구절은 살인을 일삼는 자는 ‘천하’를 근본으로 두지 않고 천하의 민심을 잃으면 천하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語叢二》의 【1】 에서 【37】 사이에는 ‘명사성분+生+於+명사성분’이란 형식 구조로, ‘어떤 것은 어떤 것에서 생겨났다’는 근원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 모두 53개 보인다. 그 중에 일부의 예문만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㉕ 情生於眚(性), 豊(禮)生於情, 【1】 嚴(嚴)生於豊(禮), 敬生於嚴(嚴)

【2】, 寔(望)生於敬, 恥生於寔(望) 【3】, 慙生於恥, 黷生於慙. 【4】 (《語叢四》)

情感은 천성에서 나오고, 예의는 정감에서 나오고, 위엄은 예의에서 나오고, 공경은 위엄에서 나오고, 책망은 공경에서 나오고, 부끄러움은 책망에서 나오고, 원한은 부끄러움에서 나오고, 불만은 원한에서 나온다.

이외에도 《性自命出》 【3】 【15】 【18】 簡과 《語叢(一)》 【22】 - 【23】 간에도 이러한 형식이 보인다. 근원을 나타내는 동사는 ‘生’자 이외에도 ‘司(始)’·‘出’·‘快’·‘博’·‘作’·‘藏’·‘羨’자 등이 있다. 논문 편폭 관계상 아래에서는 동사가 ‘司(始)’인 경우의 한 예만 살펴보도록 한다.<sup>31)</sup>

30) 蓼名春, 《郭店楚簡老子校釋》, 538쪽. 현행본을 참고하여 ‘□’에 ‘殺人不可’를 보충하였다.

31) ‘出’자의 예문은 《性自命出》 【23】, ‘快’자는 《性自命出》 【12】, ‘博’자는 《語叢一》 【82】, ‘作’자는 《語叢四》 【42】 와 《性自命出》 【18】), ‘藏’자는 《太一生水》 【6】, ‘羨’자는 《尊德義》 【21】 의 문장에서 보인다.

④ 行(道)司(始)於青(情), 青(情)生於性(性). 司(始)者近青(情), 終者近義. 【3】 (《性自命出》)

‘道’는 ‘情’에서 시작된 것이며, 그 ‘情’은 또한 ‘性’에서 나온 것이다. 그 시작은 ‘人情’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곧 ‘義’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예문 ④ 《性自命出》은 유교적 개념 중 그 근원을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사 + 於 + 명사’의 형식구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전체 166개의 ‘於(于)’ 중 ‘근거’를 의미하는 전치사는 모두 99차례 출현하여 약 59.6%를 차지한다.

張玉金(2011)의 《出土戰國文獻虛詞研究》의 <出土文獻中介詞‘於’語義功能統計表>에 의하면, 出土 중국 戰國시기 文獻 중 ‘於’자는 모두 1006개 출현하고 있는데, 그 중 ‘關係介詞’ 모두 329개이다. 이 중 ‘범위’를 의미하는 전치사가 모두 282개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출현하고 있는데, 이는 《郭店楚簡》의 ‘범위’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 ‘근거’의 의미를 지닌 전치사가 많기 때문이다.<sup>32)</sup>

#### 4. ‘於’의 생략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동반하고 ‘於(于)’를 쓰는 경우와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동사가 장소를 표시하는 ‘居·生’ 같은 자가 생략하고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郭店楚簡》 중 같은 문장인데 ‘於’자를 쓰는 경우와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⑦ 夫古者 【15】 舜(居)於艸(草)茅之中而不(憂), 身爲天子而不(喬)(轡).(《唐虞之道》)

32) 張玉金, 《出土戰國文獻虛詞研究》, 81쪽 참고.

옛 舜왕이 신분이 비천하여 초가집 속에서 살았지만, 근심이 없었고, 임금 되어서는 교만하지 않았다.

㉘ 佂(居)艸(草)茅之中而不覓(憂), 智(知)命【16】也. 身爲天子而不喬(驕). (《唐虞之道》)

초가집 속에서 살았지만, 근심이 없었던 것은 천명을 안 것이고, 임금이 되어서는 교만하지 않았다.

예문 ㉘ ‘居’자 다음에 ‘於’를 생략하여 쓰고 있다. 《郭店楚簡》에서는 자주 ‘生’자 다음에 ‘於’자를 생략하여 쓰기도 한다.

㉙ 息(仁)生於人, 我(義)生於道. 【22】 或生於內, 或生於外. 【23】 (語叢一)

仁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義는 道에서 나온다. 혹자는 마음속에서 생기고 혹자는 밖에서 생긴다.

㉚ ……生息(德), 息(德)生豐(禮), 豐(禮)生樂, 濫(由)樂【24】 智(知)型. 【25】 (語叢一)

[性은 仁을 낳고, 仁은 忠을 낳고, 忠은 信을 낳고, 信에서] 덕이 생겼고, 德에서 禮가 생겼으며, 禮에서 樂이 생겼고, 樂으로부터 刑을 알게 된다.

앞의 문장은 ‘生’자 다음에 ‘於’자를 쓰고, 뒤 문장은 ‘於’자를 생략하여 쓰고 있다. 이는 아마도 전치사 ‘於(于)’자는 문장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 종종 생략하여 쓰는 것으로 보인다.

### Ⅲ. ‘於(于)’자의 기타 용법

‘於’자는 《郭店楚簡》에서 전치사 이외 감탄사, 가차자, 접속사로 쓰인다. 이러한 용법은 《郭店楚簡·緇衣》에서 《詩經》과 《書經》을 인용하는 구절에서 보인다. 《郭店楚簡》 중 ‘於(于)’자가 전치사로 쓰이지 않고, 기타 다른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는 모두 3차례 보인다. 전체 166개 중 약

1.80%에 해당된다.

### 1. 감탄사

아래 구절은 ‘於’자가 감탄사 용법으로 쓰인다.

㉔ 《寺(詩)》云: “穆穆 **【33】** 文王, 於緝(緝)迺(熙)敬止.”(《緇衣》)

《詩經·大雅·文王》에서 말하기를 ‘거룩하고 근엄하신 문왕이여. 아아! 계속 밝으시며 경건하셨네.’라 했다.

《詩經》 현행본은 “穆穆文王, 於緝熙敬止.”로 쓴다. 《毛詩箋》은 “穆穆乎文王, 有天子之容. 於美乎! 又能敬其光明之德.”<sup>33)</sup>이라 하였다. ‘於’자가 감탄사로 쓰이는 경우 ‘烏’의 음으로 읽는다. 楚竹書 《上博楚簡》에서 ‘於’자가 ‘乎’자가 함께 쓰여 감탄사로 쓰이거나, 단독으로 ‘烏’의 감탄사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㉕ 子難(嘆)曰: “烏(於)! 莫我智(知)也夫.”(《上博楚簡·弟子問》)

孔子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아! 나를 알아주는 이 없구나.”

㉖ 於(乎), 前王不忘! (《上博楚簡·孔子詩論》)

아아! 이전의 임금을 잊지 말기를.

《上博楚簡·孔子詩論》의 문장을 《周頌·清廟·之什·烈文》은 “於乎! 前王不忘.”<sup>34)</sup>으로 쓴다.

### 2. ‘虞’의 가차자

33) 《毛詩箋》: “훌륭하도다, 文王이여, 천자의 모습을 지니셨네. 아, 아름답구나! 또한 능히 빛나는 덕을 공경하셨네.”《毛詩正義》, 李學勤 主編, 《十三經注疏》(標點本), 1999, 961쪽.

34) “아아! 이전의 임금을 잊지 말기를.”

아래 《郭店楚簡》 문장 중 ‘于’자는 ‘虞’의 가차자로 쓰인다.

㉟ 《君陳(陳)》員(云): “出內(入)自尔市(師)于(虞), 【39】 庶言同.” (《緇衣》)

《상서·군진》에서 말하기를 ‘그 대중이 걱정하는 것에 따라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을 행하며, 대중의 의견에 일치하도록 하시오.’라 했다.

현행본 《尙書·君陳》은 “出入自尔師虞, 庶言同則繹.”<sup>35)</sup>으로 쓴다. ‘于’자와 ‘虞’의 음이 서로 통한다. ‘虞(虞)’자는 ‘庠’와 소리부 ‘吳’로 이루어진 자로 금문은 ‘虞·吳’로 쓴다.

《爾雅 釋言》은 “虞, 度也.”라 하고, 《書經·大禹謨》“傲戒無虞, 罔失法度.”<sup>36)</sup>에 대하여 孔傳은 “虞, 度也.”라 하였고, 《大雅·抑》“質爾人民, 謹爾侯度, 用戒不虞.”<sup>37)</sup>에 대하여 毛傳은 “不虞, 非度也.”라 하고 鄭箋은 “及邦國之君, 平女萬國之事, 愼女爲君之法度, 用備不億度而至之事.”<sup>38)</sup>라 하였다.<sup>39)</sup> 朱熹의 《詩經集傳》은 “質, 成也, 定也. 侯度, 諸侯所守之法度也. 虞, 慮.”<sup>40)</sup>라 하였다. 따라서 ‘于’자는 ‘虞’의 가차자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 《尙書·君陳》: “그 백성의 걱정애 따라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을 행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같거든 곧 시행하시오.”

36) 《爾雅 釋言》: “虞는 헤아림이다.” 《書經·大禹謨》: “헤아림이 없음을 경계하시어 법도를 잃지 않도록 하시오.”

37) 《大雅·抑》: “그대의 인민을 안정시키며 그대 제후로서의 법도를 삼가며, 헤아림이 없음을 경계하네.”

38) 毛傳: “不虞’는 헤아림이 없음을 말한다.” 鄭箋: “한 나라의 군주는 당신의 나라 일을 안정하게 다스리고, 군주의 법도 행함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로써 헤아림 없는 억측으로 일이 그르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39) 《毛詩正義》, 李學勤 主編, 1167쪽.

40) 《詩經集傳》: “質은 이롭이고 정함이다. 侯度는 제후로서 지켜야 할 바의 법도이다. 虞는 헤아림이다.”

## 3. 접속사

‘於’자는 또한 《郭店楚簡》에서 ‘況’자와 함께 쓰여 접속사 용법으로 쓰이기도 한다. ‘何況(하물며)’의 의미와 같다. ‘況於’는 또는 ‘況乎’로 쓰기도 한다.

㉞ 龟(筮)猷(猶)弗智(知), 而皇(況)於人(乎)? 【46】 (《緇衣》)

이러한 사람은 귀서(龜筮)도 알 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사람은 어찌 하겠는가.

위의 예문 ㉞ 구절은 《上博楚簡·紂衣》에는 보이지 않고, 현행본 《禮記·緇衣》는 “龜筮猶不能知也, 而況於人乎?”로 쓴다.

## IV. 결 론

《郭店楚簡》에서 ‘於’와 ‘于’자 중 ‘于’자는 단지 6차례만 쓰이고, 나머지 160여 차례는 모두 ‘於’자를 쓴다.

‘於’字句는 의미적으로 크게 ‘장소’·‘대상’과 ‘범위’로 분류할 수 있고, ‘대상’은 다시 ‘언급되는 대상’·‘행위 동작을 받는 대상’·‘비교되는 대상’과 ‘행위동작의 주체 대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범위’는 ‘시기’·‘방면’·‘도달’·‘근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전체 166개의 ‘於(于)’ 중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모두 20차례, ‘대상’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모두 20차례, ‘범위’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모두 123차례, 기타 용법으로 쓰이는 용법이 모두 3차례 보인다. 이중 ‘범위’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모두 123차례 중 ‘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모두 99차례 쓰여 압도적인 숫자적 우세를 보인다. 이는 《性自命出》이나 《語叢》편에서 근원의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이와 같은 개념은 ‘於(于)’자구를 사용하여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郭店楚簡》‘於(于)’자 용법 통계표

| 용법 |             | 전체 횟수            | 세분<br>용법 | 해당용법에<br>빈도 | 전체에 대한<br>빈도 |        |
|----|-------------|------------------|----------|-------------|--------------|--------|
| 장소 |             | 20개(12%)         |          | 100%        | 12%          |        |
| 대상 | 언급되는 대상     | 20개<br>(12%)     | 6        | 30%         | 100%         | 3.61%  |
|    | 행위동작을 받는 대상 |                  | 5        | 25%         |              | 3.01%  |
|    | 비교되는 대상     |                  | 2        | 10%         |              | 1.20%  |
|    | 행동동작의 주체 대상 |                  | 7        | 35%         |              | 4.21%  |
| 범위 | 시기          | 123개<br>(74.09%) | 5        | 4.06%       | 99.9%        | 3.10%  |
|    | 방면          |                  | 12       | 9.75%       |              | 7.22%  |
|    | 도달          |                  | 7        | 5.69%       |              | 4.21%  |
|    | 근거          |                  | 99       | 80.4%       |              | 59.6%  |
| 기타 | 감탄사         | 3개<br>(1.8%)     | 1        | 33.3%       | 99.9%        | 0.6%   |
|    | 가차자         |                  | 1        | 33.3%       |              | 0.6%   |
|    | 접속사         |                  | 1        | 33.3%       |              | 0.6%   |
| 합계 |             | 166<br>(100%)    | 166개     |             |              | 99.96% |

## &lt;References&gt;

1. Chen Chusheng, *Jinwen Changyong Zidian*, Shanxi: Renwen Press, 1986.
2. Chen Wei, *Guodian Zhushu Bieshi*, Wuhan: Hubei Jiaoyu Press, 2003.
3. Choi Nan-gyu, *Guodian Bamboo Books*, Seoul: Hakgobang Press, 2016.
4. Choi Nan-gyu, *The Chu Bamboo Scripts of Warring states in Shanghai Museum*, Seoul: Someng Press, 2016.
5. Deng Yuemin, *Guodian Chujian Yufa Yanjiu(A study on the*

- Grammar of Guodian Bamboo Books*), Chengdu: Sichuan Univ., 2006.
6. Dian Desen, *Shiyong GuHanyu Xuci*, Shanxi: Jiaoyu Press, 1999.
  7. Ding Yuanzhi, *Guodian Chujian Rujia Yiji Sizhong Shixi*, Taiwan: Guji Press, 2000.
  8. Jingmen Shi Museum, *Guodian Chumu Zhujian*, Beijing: Wenwu Press 1998.
  9. Li Xueqin, *Shisan Jing Zhushu·Maoshi Zhengyi*, Beijing: Beijing Univ. Press, 1999.
  10. Li Xueqin, *Shisan Jing Zhushu·Shangshu Zhengyi*, Beijing: Beijing Univ. Press, 1999.
  11. Liao Mingchun, *Guodian Chujian Laozi Jiaoshi*, Beijing: Qinghua Univ. Press, 2003.
  12. Liao Zhao, *Guodian Chujian Jiaoshi*, Fujian: Renmin press, 2003
  13. Ling Ling, *Guodian Chujian Jiaodui*, Beijing: Beijing Univ. Press, 2002.
  14. Ling Ling, *Shangbo Chujian Sanpian Jiaodui*, Beijing: Beijing University, 2002.
  15. Ling Mingxiao, *Zhanguo Chujian Yufa Yanjiu(A study on the Grammar of the Warring States Bamboo Books)*. Hubei: Wuhan Univ. Press, 2010.
  16. Teng Rensheng, *Chuxi Jianbo Wenzibian*, Hubei: Jiaoyu Press, 2008.
  17. Yang Bojun, He Leshi, *Gu Hanyu Yufa ji Qi Fazhan(A Grammar of Ancient Chinese And Its Development)*, Beijing: Yewen Press, 1992.
  18. Yang Bojun, *Lunyu Yizhu*, Beijing: ZhongHua Press, 1992.
  19. Zhang Shouzhong, *Guodian Chujian Wenzibian*, Beijing: Wenwu Press, 2000.

20. Zhang Yujin, *Chutu Zhanguo Wenxian Xuci yanjiu*(Study on Function Words in the Unearthed Literature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Beijing: Renmin Press, 2011.
21. Zhu Fagao, *A collection of Chinese linguistics learned papers*, Taiwan: Lianjing press, 1975.

<참고문헌>

1. 陳初生, 《金文常用字典》, 人文出版社, 1986.
2. 陳偉, 《郭店竹書別釋》, 湖北教育出版社, 2003.
3. 崔南圭 譯註, 《郭店楚墓竹簡》, 學古房, 2016.
4. 崔南圭 譯註,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性情論》, 소명출판사, 2012.
5. 鄧躍敏, 《郭店楚簡語法研究》, 成都, 四川大學博士論文, 2006.
6. 丁原植, 《郭店楚簡儒家佚籍四種釋析》, 古籍出版有限公司, 2000(初版)
7. 段德森, 《實用古漢語虛詞》, 教育出版社, 1999.
8. 荊門市博物館, 《郭店楚墓竹簡》, 文物出版社, 1998.
9. 廖名春, 《郭店楚簡老子校釋》, 清華大學出版社, 2003.
10. 李零, 《郭店楚簡校讀記》(修訂本), 北京大學出版社, 2002.
11. 李零, 《上博楚簡三篇校讀記》, 人民出版社, 2007.
12. 李明曉, 《戰國楚簡語法研究》, 武漢大學出版社, 2010.
13. 李學勤 主編, 《十三經注疏·毛詩正義》(標點本), 北京大學出版社, 1999.
14. 李學勤 主編, 《十三經注疏·尚書正義》(標點本), 北京大學出版社, 1999.
15. 劉釗, 《郭店楚簡校釋》, 人民出版社, 2003.
16. 滕壬生, 《楚系簡帛文字篇》(增訂本), 教育出版社, 2008.
17.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1992.

18. 楊伯峻, 《論語譯註》, 中華書局, 1980.
19. 張守中, 《郭店楚簡文字篇》, 文物出版社, 2000.
20. 張玉金, 《出土戰國文獻虛詞研究》, 人民出版社, 2011.
21. 周法高, 《中國言語學論文集》, 聯經出版事業公司, 1975.

### <Abstract>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among ‘YU(于)’·‘YU(於)’ and ‘HU(乎)’, they are both originated from the same root. However in the most cases of *GUODIANCHUJIAN*, ‘HU(乎)’ is mainly used for postpositional purpose except for the usage of conjunction indicating comparison. Semantically, we can sort ‘YU(於)’ phrase in ‘place’·‘object’ and ‘scope’. Except for the usage of preposition in *GUODIANCHUJIAN*, the character ‘YU(於)’ is also used for the usage of exclamation and preposition, or as the ‘phonetic loan character’ of ‘YU(虞)’. Also, ‘YU(於)’ can be omitted when it is used as a preposition or no big semantic confusion is expected, particularly, ‘YU(於)’ which comes after ‘SHENG(生)’ in *YUCONG*(語叢).

Grammatically, the phrase ‘YU(於)’ can appear in various forms. Particularly, since the part explaining the conception accounts for the biggest share in *XINGZIMINGCHU*(性自命出) of *GUODIAN CHUJIAN* or in *YUCONG*(語叢), the phrase ‘YU(於)’ is often used in the partial form of judgmental sentences.

Key Words : 郭店楚簡(GUODIANCHUJIAN), 於(YU), 于(YU), 乎(HU),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Chu Bamboo Slips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collected in Shang hai museum, preposition.)